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폴라니적 시각은 신자유주의를 20세기 후반의 경제적 전환을 주도한 관념적 및 사상적 힘으로 바라본다. 모든 경제적 요소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된다고 보는 자기조정적 시장 질서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화 초기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추동된 경제적 교리로 등장했다. 폴라니는 이러한 기제야말로 자연적 질서를 반영하며 가장 이상적인 경제 원리라고 보았다.

19세기 초에 형성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1970-1980년대의 ‘거대한 전환’을 촉진했는가에 주목하는 시각은 관념과 사상이 제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경제적 관념은 신자유주의가 그 시대의 케인스주의와 경쟁하면서 당대의 제도들이 지양해야 할 대안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관념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70년대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케인스주의를 대체하는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가령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이론과 시각의 확산은 이 시기 거대한 변화를 야기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또한 관념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국가는 인프라 구축, 금본위제 확립 그리고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개입을 수행함으로써 자기조정적 시장에 대한 관념을 현실에 구현했다. 그런데 국가는 한편으로 이와는 상충되는 반대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반되는 파괴적 효과로부터 그에 대한 억제로서 사회 보호를 위한 개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시장과 국가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요컨대 자기조정적 시장 제도가 강화될수록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역시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폴라니의 관점에서는 시장을 위한 개입과 사회 보호를 위한 개입 사이의 이중 역할이 국가에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 폴라니적 시각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론 혹은 정책 변화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노동 계급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일관된 관념이나 사상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동시에 폴라니의 표상에 자리잡던 신자유주의 관념의 인과적 지위 역시 부차적으로 취급된다. 심지어 마르크스적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자 없는 신자유주의도 가능하다고 보며, 국가의 역할 또한 재해석을 가한다. 국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계급권력의 복원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을 신자유주의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때로는 저항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는 억압적 존재로 전제된다. 이는 분명 신자유주의 질서의 재생산에 관한 분석에서 지배계급의 전략과 기획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푸코적 시각은 신자유주의를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과 집단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규제하고 형성하는 ‘규범’적 체계로 이해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와 자본이 주도해왔던 변화에 뒤따라 이른바 ‘대중의 신자유주의화’라는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더 이상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일방적 피해자로서의 대상

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숭상하고 재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적 접근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폴라니적 그리고 마르크스적 접근과 달리 푸코 시각에서는 대중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변모하게 되는가를 주요한 질문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는 경제 주체로 주체화하며, 개인이 자기관리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최대화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생명정치와 정부성을 통해 인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13. 윗글의 폴라니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19세기 영국에서는 자기조정적 시장 질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교리가 부상하였다.
- ② 규범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념을 1970년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상적 모태로 보았다.
- ③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 ④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의 경제적 전환을 주도한 사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⑤ 정부에 의해 시장을 위한 개입이 강화될수록 사회 보호를 위한 개입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 마르크스 시각에서 ㉠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비판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신자유주의 관념은 새로운 국면의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현상 중 하나이다.

ㄴ.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시각의 확산은 정치적 전략의 일부로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 계급에 대한 지배에 투쟁하게 한다.

ㄷ. 신자유주의가 갖는 관념적 내용은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ㄹ. 국가의 본질적 역할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비교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푸코에 따르면 '규범'은 사회적 행동과 사고방식을 규제하는 규칙이나 표준이다. 규범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인 '주체화'를 통해 '자기관리'를 촉진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교육, 직업 등을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관리는 '생명정치'(Biopolitics)의 일환으로, 신자유주의는 생명정치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성'은 통치의 방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권력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걸쳐 행사되는지를 설명한다.

- ① 폴라니는 '규범'이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폴라니는 '자기관리'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사회적 연대와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마르크스는 '주체화'가 개인을 자본주의적 가치에 종속시키고,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이는 계급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마르크스와 폴라니 모두 '정부성'이 국가가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보는 점에서 대중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폴라니, 마르크스 그리고 푸코 모두 '생명정치'를 추진하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가 신자유주의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겠군.